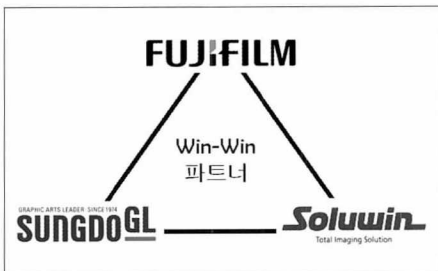


제2창립 마음으로

CI 변경 재도약 다짐



새로운 로고 중심에 있는 날카로운 디자인 상징은 진보한 기술을 상징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로고는 새로운 후지 브랜드의 의지를 간결하면서도 강하게 표현했다.

1934년 1월 20일에 설립, 8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FUJI PHOTO FILM이 2006년 10월부터 회사 명과 CI를 FUJIFILM으로 변경,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국내 인쇄업계에서도 FUJIFILM은 뛰어난 품질과 명성으로 인쇄용 필름, 필름 출력기, 판재, 약품 등의 전통적인 시장을 이끄는 한편, 디지털 시장을 주도하는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CTP 및 관련제품도 공급하고 있다.

FUJIFILM은 2003년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아울러 VISION75라는 중기 경영계획을 수립, 2004년을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선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2006년에는 과거의 관습을 버리고 좀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 빠르고 열린 마음으로 주도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기본 목표를 세웠다. FUJIFILM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10월, 새로운 CI를 발표하면서 조직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구조적 개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술개발 · 생산설비 확충으로 시장요구에 맞는 제품 공급

그래픽아트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 PS 판재는 물론이고, CTP 판재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4개의 생산 시스템 강화, CTP의 완벽한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산업 디지털 장비를 위한 잉크 산업의 확대 등을 중점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판재 사업을 21세기 핵심 키워드로 삼고, 중국 북경과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 생산설비를 확충하여 아시아 시장의 고객사에 최고 품질의 PS 판재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

FUJIFILM은 현재 한국 인쇄시장에서는 (주)성도GL과 (주)솔루윈을 통하여 그래픽아트 부문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FUJIFILM은 향후에도 (주)성도GL과 (주)솔루윈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 시장 요구에 맞춰 제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